

신년메세지



창조적 혁신으로 가치창출의 극대화



전자산업인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돼지해 중에서도 가장 복된 황금돼지해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고 힘차게 도약하는 뜻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전자산업은 환률하락, 고유가등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두 자리 숫자의 수출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산 현장에서 최고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자산업인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산업인 여러분!

금년에도 전자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전자산업인들의 끝없는 도전정신과 보다 나은 미래 건설하려는 노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산업발전의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쟁국들보다 한 발 앞서 발상과 창조적 혁신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2015년 수출 3,000억불, 세계 3위 전자강국이라는 우리의 꿈을 현실화하는데 우리들의 역량을 다하는 2007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격변하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지구촌 방방곡곡의 고객들을 감동시키는 블루오션을 창출함으로써 Digital Korea Brand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우리제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 산업경쟁력 향상에 매진 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술혁신, 해외시장개척, 환경경영, 특허솔루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윤리경영 등 우리업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자진흥회의 업무혁신과 서비스개선 노력을 약속드리며 전자산업인 여러분들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07년 새해 첫날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회장 윤종용